



안녕하세요. 최은숙 수녀입니다. 천주교 박해시대를 사신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시다 제가 태어난 경천이라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헛간 방을 얻어서 가난하게 사셨고 저는 1963년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제 대모님이신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천주교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 회관을 빌려 공소를 시작하시고 공소 회장이 되어 마을 분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요리 강령책을 보여주면서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수호천사가 슬퍼한다고 하셔서

조심하면서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기적처럼 나으셨고 항상 기도하시며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성모상 앞에서 내가 수녀원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수녀회에 가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간다고 해서 수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게 된 것은 매우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녀회를 찾고 있을 당시 항상 새벽미사를 다녔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자는 바람에 미사에 참석을 못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출근길 시내버스 안에서 문말린 수녀님과 이신자 수녀님을 뵈게 된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서 자리를 권하면서 수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 인연으로 1986년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도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인 충주성심 맹아원을 거쳐 본원 주방 일과 본원 관리 책임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여 2001년 광주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씨튼베이커리에 파견을 받아서 장애인과 함께 빵을 만들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힘이 든 것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음 안에 평화로움이 왔습니다.



처음 장애인 30명과 직원 3명으로 시작할 때는 봉사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빵을 만들었고 2007년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게 되어 봉사자의 도움 없이도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설이 되면서 직원이 늘고 현재는 장애를 가진 근로인 54명과 비장애인 28명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베이커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처음엔 이 선택에 대해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고 무엇보다 장애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수녀님들의 도움과 많은 은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의 베이커리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Hello! Sisters! I am Sr. Choi, Eun Suk.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ell you my ancestors. My grandfather was Catholic, and during the persecution era, he had to run away with his family here and there to avoid persecution. Finally they settled in Kyong Chun, a little mountain village. They were so poor that they had to live in a barn belonging to someone else. Now, I will begin my story. I was born in 1963, the third of one son and four daughters.

My family was the only Catholic family in my neighborhood. It was my grandfather who borrowed the community hall to have liturgy so that the villagers could know God. Since my childhood, my grandfather showed me catechism books and said that the guardian angel would be sad if I sinned. I

remember that I was trying not to make my guardian angel feel sad. My mother was suffering from tuberculosis. Her recovery was like a miracle. Since then she always prays to God. I think that who I am now is because of my mother's prayer.

My dream was to be a nun since secondary school. Standing in front of the statue of the Blessed Mary in Church, I would pray that I could enter the convent and help those in need. My father asked me why I wanted to be a religious. I told him that it is up to God whether I can be a religious or not and everything depends on God's will for me. He did not ask any more.

It was very accidental that I came to know our community. When I was looking for a religious community and working in Seoul, I always attended Mass at dawn. One day I overslept and missed the Mass. On my way to work, I met Sisters Marlene and Shin Ja on a city bus. Giving my seat to them, I told them of my wish to be a sister. Since then, I got to know our community and entered in 1986.

I worked at Sacred Heart social welfare facility for the Blind in Choongju, was in charge of kitchen of the Provincial House, and studied Social Welfare. Since 2001 I have been working with the disabled at Seton Bakery, affiliated with the Seton Rehabilitation Center. In the beginning I made lots of mistakes and faced many challenges, however, God was my assistant. When I gave everything to God with trust, my heart was filled with peace.



When it comes to the bakery, I started to work with thirty disabled people and three staff. Many volunteers helped me to manage and bake the bread at that time. In 2007 the bakery was raised to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 comprised of both those with disability and those without disability. Since then the bakery could be managed without the help of volunteers. Now it became a community where fifty four workers with disability and twenty eight without disability are working and helping one another.

However, it is not easy at all to run the bakery with the disabled, and I sometimes regretted having started it. As time passes on, I came to be proud of this work because we are making safe and reliable food for ourselves and



others, and most of all; we know that this is the work to give hope to the disabled. I am so grateful to God and the sisters and benefactors who helped me to make the bakery what it is today.